한 경선위, 여론조사 '절충안' 확정

설문방식 선호도·지지도 접목하기로

李·朴 반발속 "결국 받아 들일 것"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는 6일 여론조사 설문방식과 관련, 선호도와 지지도를 절충한 중재안을 확정했다.

경선관리위는 이날 오후 8차 합동유세가 열린 경남 창원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구식 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 설문은 '선생님께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다음 네 사람 중 누구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이 전 시장 측이 고집해 온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의 선호형 방식과 박 전 대표 측이 원해 온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지지형 방식을 기술적으로 접목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지지도와 선호도 양쪽 방식에 대해 양 캠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양쪽의 주장을 반반씩 받아들인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여론조사전문가위에서 애초 올린 안은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선호도 방식이었다"면서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을 갖고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올렸지만 경선관리위는 순수한 학자들의 안만 갖고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다.

정당은 정치조직이고 경선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주장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선관리위의 이날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최고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추인 절차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일단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 측 박형준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현재로서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론조사전문가위가 처음 결정했던 선호도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이혜훈 대변인도 "무늬만 중재지 내용적으론 중재가 아니다"면서 "진짜 중재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선관위로서는 양쪽이 100% 만족하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양 캠프가 결국은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도 "여론조사 설문방식에 대한 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지금은 양 캠프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으나 결국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남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이 전 시장이 연설을 위해 활짝 웃으며 연단으로 오르는 순간 박수를 치는 박 전 대표의 얼굴이 굳어져 있다. /연합뉴스

李캠프 특보 최목사 등기 대량 발급

검찰, 재산내역 불법 확보 경위 수사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와 최태민 목사 등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모씨가 최 목사 자녀들의 등기부 등본 수십통을 떼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려면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아야 해 검찰은 임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최씨의 재산 내역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수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후보 비방 기자회견문과 최 목사 자녀 재산의 등기부 등본을 김씨에게 건넨 임씨가 최 목사 측의 재산 현황을 국가기관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재산 내역을 파악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씨는 그러나 "모든 정보는 일간지 등을 통해 알려진 것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해호씨는 6월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의 딸에 대해 "1984년 20대 후반의 이혼녀가 압구정동 중심에 수백 평의 토지와 건물을 소지했는데, 자금의 출처와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이 재산은 과거 행적으로 추정컨대 박 후보와 관련된 재단의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검찰은 박 후보와 최 목사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연 김해호씨를 3일 구속기소하면서 박 후보가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영남대 강당 등 신축공사를 발주해줬다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또 지만원씨를 구속하면서 지씨가 주장한 이 후보의 출생과 병역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4월 여의도 정가에 유포된 '박근혜 비방 CD'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CD에는 박 후보와 최 목사,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내연녀, 3공 시대의 비자금 의혹 등 PDF 파일과 문서양식으로 된 과거 언론보도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검찰은 누가 CD를 제작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전날 서울 시내 모 병원을 방문해 조사한 이 후보의 맏형 이상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18일 대선 출마 변수 주목

열린우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18일 출정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유 전 장관측 이광철 의원은 이날 "유 전 장관이 지난주 휴가기간 출마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3기 민주정부를 계승하고 남북화해 평화와 사회투자국가 건설을 위해 대선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의 출마는 범여권 경선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전 장관은 범여권 내 친노(親盧) 주자 중 가장 친노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되고 있어 범여권 경선의 주요한 한 축이 친노 대 반노(反盧)·비노(非盧)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한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나 김혁규 의원 등 친노 주자들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 등 반노·비노 주자들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유 전 장관은 이 전 총리와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두 사람의 역학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그동안 자제했던 강연 등을 통해 당분간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오는 18일 자신의 지지모임인 '참여시민광장' 1만 유티즌 전국 대번개 행사를 통해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경선을 대비해 지지세 확산 작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李·朴 광주·전남 반쪽공약"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5일 제시한 광주·전남지역 공약에 대해 구체적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반쪽 자리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영산강 운하 추진' 박 후보의 '광주 문화기술 메카로 건설' 공약 내용 대부분이 '하겠다'는 구호만 있지 '어떤 방법'이라는 재원 확보 방안 등의 세부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 외에도 ▲남해안 신성장 벨트 ▲여수엑스포 지원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 등 주요 공약은 국민의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공약임에도 선언적 지역개발 공약만으로 채워진 애매모호한 반쪽 짜리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 대부분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방분권과 문화중심도시, 서남해안 개발 사업 등의 축소나 중단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용기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김동철의원 수사 의뢰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6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논란과 관련, 땅을 매입한 포항제철에 대한 지난 1998년 감사원의 특별감사 문답서를 공개한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과 감사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방대한 감사기록을 감사원 직원이 유출하지 않았으면 김 의원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며 "원래 수사·감사기록은 국회의원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 방대한 기록속에서 그 부분만 보여준 것은, 감사원의 직무에도 위배되고 업무상 비밀유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도곡동 땅 매입 당시 포항제철 회장을 맡고 있던 김만제 전 의원이 감사원 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 알고 있다'고 답한 내용의 감사 문답서를 공개했었다.

/연합뉴스

이희호여사 69년만에 금강산 방문

12일부터 2박3일 일정
김홍걸·박지원 등 동행

현대아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는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씨,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옥두 전 의원 등 가족과 지인 27명이 함께 한다.

이희호 여사 일행은 일반 관광코스에 따라 첫날에는 금강산 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이산가족 면회소와 기타 숙박 및 편의시설을 둘러본 뒤 둘째 날에는 내금강을 다녀올 예정이다.

최경환 비서관은 "여고 시절 수학여행으로 내금강 비로봉을 가봤던 이희호 여사께서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해서 휴가철을 이용, 여행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여사가 이번에 금강산을 찾는 것은 69년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금강산 방문이 아무리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방북이라 '큰 일'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 계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